

### 1. 개요

□ **일시/장소** : 2020. 7. 22(수) 14:00 ~ 17:00 / 농특위 대회의실

□ **안 건**

- (안건1) 전차 운영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안건2) 제5차 본 위원회 후속 조치 필요 사안
- (안건3) 제2기 농어업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계획
- (안건4) 각 소분과 하반기 운영계획 보고

□ **참석자**

- 운영위원: 김영재 분과장, 박준기 위원, 박일진 위원, 정학철 위원, 조병욱 위원
- 운영간사: 사무국 농어업정책팀장 및 팀원

### 2. 회의 주요 결과

□ (안건1) 전차 운영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제6차 운영소위원회 회의결과 농어업정책팀장 보고 후 전체 운영위원 의견 없음으로 종결

□ (안건2) 제5차 본 위원회(7.14) 후속 조치 필요 사안 검토 결과

① 축산 방역·질병 개선 TF 구성 요청 件

안전 축산물 생산,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조직 개편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농특위에 축산 방역·질병 개선 TF 개설을 본회의 중 정구용 위원이 요청

⇒ 축산소분과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사무국과 협의하여 논의 후 그 검토 결과를 정구용 위원께 피드백 조치

## ② 식량주권 의제, 논의 틀 마련 요청 件

포스트 코로나 대응으로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하기에 식량주권과 관련해서 농특위가 의제를 마련하고 특별위원회 등의 논의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고 박흥식 위원이 제안

⇒ 식량주권은 생산만이 아닌 포괄적인 문제로 국가단위 먹거리 종합 전략과 보조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와, 년 초에 농특위 12대 개혁과제 보완을 위해 구성한 작업반을 가동해서 식량주권 의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본위원회 운영위에 제안 계획(분과위원장)

## ③ 중점연구과제 의안 작업 件

중점연구과제인 '재정구조 개편'과 '직불제 개편 방안'에 대해 분과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의안화 하도록 결정됨

⇒ '직불제 개편 방안'은 공익형직불제 소분과에서 기존 연구결과를 보완해서 의안화를 추진하고,

⇒ '재정구조 개편'은 예산구조 변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TF 또는 협의체를 농식품부에서 구성토록 하는 등의 의안 초안을 실무작업반이 만들고 운영소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 추진

## ④ 기타

⇒ 김홍길 위원이 농특위에서 축산관련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각 소분과는 축산관련 논의 추진 시 축산단체와 적극 소통 필요

⇒ 다음 본위원회부터는 축산 관련 의제(공익직불, 경영안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분과의 업무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기로 함

## □ (안건3) 제2기 농어업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위촉 계획

○ 김현대 위원, 장영수 위원 자진 사의 표명

⇒ 운영위원은 7.29(수)까지 사무국 손영준 팀장에게 분과위원 후보자를 추천, 취합 후 농특위 위원장께 보고

## □ (안전4) 각 소분과 하반기 운영계획 검토 결과

### <가격안정소분과>

#### ○ ‘수입농수산물 관리방안’ 의제 추진 방향

- 농업통상 문제는 급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함

⇒ 수입농산물 관리방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면 폭을 좁혀서 한 측면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소분과 회의에서 논의 (우선 송기호 위원께 발제 요청하고 어려우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방식 마련으로 논의 진행)

#### ○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에 대한 농특위 입장

- 전남도의 고민은 높ی 평가함. 그러나,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이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인지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수단인지 방향을 명확히 잡고 체계 설계가 필요함.

⇒ 제안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화 시켜야함.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 추진은 전남도 자체 업무로 추진

#### ○ 8월 마늘·양파 유통개선 토론회 개최 관련

- 토론회 농식품부 발제(안)은 수급조절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가격안정대책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안)으로 아직 현장의 평가는 의견이 분분. 농특위에서 논의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이해 및 준비가 부족

⇒ 토론회 추진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검토

⇒ 8.20은 GSnJ의 미국·일본 정책사례 발표 및 소분과 회의로 진행

### <농지제도소분과>

#### ○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에서 논의할 추가 의제 제안 요청

- 농지실태조사는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체결이 이뤄졌고, 경기 및 경남지역 농지실태조사의 준비가 상당 부문 이뤄짐. 따라서 정책

연구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의안을 마련하면 농지제도개선과 관련된 의제는 일단락 될 것임.

- 농지제도개선 이외에 농업인 정의 등 추가적으로 논의할 의제 마련 필요

⇒ 다음 소분과 회의에서 추가 논의 의제 확정

○ 농지실태조사 관련 위촉식 개최 방향

- 농지실태조사 진행 시 조사원에게 위촉장 수여는 필요한 사안으로 위원장님께 재검토 요청

### <공익직불제소분과>

○ 축산, 수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축산소분과 및 가격안정소분과와 협업해서 논의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축산소분과>

○ 축산분야 의제 논의에는 경종,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소분과 회의에 타분과 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의 의견 제시 필요

⇒ 축산소분과 논의에는 환경 분야 위원 및 전문가가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조정 필요

### □ 기 타

○ 소분과 회의 진행방식

- ㉠소분과 회의 전에 회의주제(의제)를 공지 → ㉡참석자별 의제에 대한 발제 구상 등 숙제 부여 → ㉢ 당일 회의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유도 → ㉣ 지난번 회의결과를 공유 → ㉤ 회의결과(회의록) 중 핵심사항이 차기 회의주제로 선정

## 3. 후속 계획

□ 운영소위 회의결과 분과위원 공유

□ 소분과 운영계획에 회의결과 반영 추진

## □ (안건1) 전차 운영소위원회 회의결과 검토

- 제4차 농어업분과위원회 회의(5.15) 결과와 제6차 운영소위원회 회의(5.12) 결과 보고(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 없다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음(김영재 분과위원장)
- 다른 의견 없음(운영위원)

## □ (안건2) 제5차 본 위원회 결과 보고

- 사무국 총괄팀에서 본 회의 결과가 아직 정리 전이기에, 우선 운영소위에서는 농어업분과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논의가 필요한 3가지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림(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 첫 번째로, 안전 축산물 생산,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조직 개편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농특위에 축산 방역·질병 개선 TF 개설을 정구용 본위원이 요청하셨고, 축산소분과장님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협의하여 피드백 하도록 하겠음(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 본위원의 강력한 요청 사항은 사무국 차원에서 피드백이 필요한 사안임. 정구용 위원 의 제안서를 축산소분과에 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해주시기 바람(김영재 분과위원장)
- 두 번째로, 식량주권과 관련해서 농특위가 의제를 가지고 특별위원회 등의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홍식 본위원이 제안한 사항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으로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셨음(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 식량주권의 문제는 공감하는 사안이나, 식량주권은 생산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문제로 3분과에서 추진하는 국가단위 먹거리 종합 전략과 보조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본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할 사항임(김영재 분과위원장)
- 식량주권은 하나의 의제라기보다는 농지문제, 가격안정 정책, 식량자급률 법제화, 수입농산물 관리방안 등 소 의제를 담고 있음. 농특위 논의의 방향은 공론화 또는 의안화 작업으로 결론이 나와함. 그러나, 논의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 TF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전에 이에 대한 농어업분과 차원의 방향이 있어야 함  
(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 식량주권 관련 각 분과에서 세분해서 나누어서 논의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모아 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함. 더불어 각 소분과에서 의제를 논의시 식량주권 관련 사항을 염두해 두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됨(정학철 위원)
- 국가단위 먹거리 종합전략에서의 핵심이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급이라 식량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함. 년초에 농특위 12대 개혁과제 보완을 위한 농특위 종합적인 단위의 작업반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작업반을 가동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운영위에 제안할 계획임(김영재 분과위원장)
- 세 번째로, 중점연구과제인 ‘재정구조 개편’, ‘직불제 개편 방안’에 대해 분과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의안화 하도록 결정됨. 직불제 개편 방안은 ‘선택형직불 확대 소분과’에서 의안 작업 중이나 재정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별도로 의안화 작업 계획이 필요하고 운영소위에서 논의가 되어야함(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 공익직불제 확대는 공익형직불제 소분과에서 기존 연구결과를 보완해서 의안화를 추진하고 있고, 재정구조 개편은 연구결과 보고서에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리되었고 그 작업방법으로 이해관계자 TF 또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의안화를 추진하면 될 것임(김영재 분과위원장)
- 재정구조 개편에 관련해서는 분과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현재 연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해서 의안 작업할 실무작업반으로 하여금 의안을 만들고 운영소위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후 본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함(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 사무국이 재정구조 개편 의안 초안을 전문가와 함께 마련하고 운영소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함(김영재 분과위원장)
- 농정틀 전환하는 방향으로 뒷받침하는 농정예산의 목표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구조조정 되어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 의안화 중심 내용이 될 것임(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 추가 사항으로, 축단협의 김홍길 한우협회장님이 농특위에서 축산관련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음. 가격안정대책과 공익형직불제에 논의에 축산이 제외되고 있다고 발언하셨음. 축산단체들은 규제 중심 정책 대상으로 지원 정책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함. 각 소분과에서 축산 관련 논의 내용을 축산단체와 소통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김영재 분과위원장)

- 덧붙여 설명드리면, 김홍길 위원님이 농특위에서 축산경영안정화 방안과 축산 공익형직불도 의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시나, 본위원회에서 추진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임. 본위원회에서 안전만 다루지 말고 추진 중인 논의 사항도 보고가 필요하다고 제안 하셨음. 차기 본위원회 부터는 각 분과위원회 논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기로 본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음(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 □ (안건3) 제2기 농어업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위촉(안)

- 김현대, 장영수 위원은 자진 사의를 표명한 상황 임(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 7.29(수)까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 손영준 팀장에게 분과위원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람. 취합해서 위원장께 전달할 계획임. 현재 논의에 보장되는 방향으로 인선 절차가 진행 될 것임(김영재 분과위원장)

#### □ (안건4) 각 소분과 하반기 운영계획 보고

- 소분과 운영방식에 대해 강마야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 드리겠음. 1. 소분과 회의 전에 회의주제(의제)를 공지하고, 2. 참석자별 의제에 대한 발제 구상 등 숙제를 부여하여 3. 당일 회의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4. 지난번 회의결과를 공유(농특위 차원에서 회으로 정리)하고 5. 회의결과(회의록) 중 핵심사항이 다음달 회의주제로 선정되게끔 회의진행 방식과 절차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함(김한승 사무관)
- 좋은 제안 주셨고 모두 동의하신 것으로 처리하겠음(김영재 분과위원장)

#### <가격안정소분과>

- 마늘 양파 유통구조개선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개최 목적이 불분명함(김영재 분과위원장)
- 정부의 주요채소 가격안정정책에 대해 들어보고 문제점 등 개선방안에 논의해 보자는 초안에서, 생산자 지자체 등 각자가 구상하는 유통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소분과 회의에서

결정 됨(정학철 위원)

- 마늘·양파로 한정하는 것보다 가격안정 대책 하나의 일환으로 농산물 수급조절 대책이 가능한지 큰 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되어야함. 토론이 유통구조개선 문제인지 수급조절 기능 대책 검토인지 방향을 명확히 하고 추진해야함. 기존에 있었던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KPO 관련해서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지 살피는 자리가 되어야함. 마늘·양파 수급 대책이 아닌 가격안정 대책이 모색되어야함 (김영재 분과위원장)
- 토론회 농식품부 발제(안)은 수급조절 기능을 통한 가격안정대책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안)인데 이것들에 대한 평가는 아직 현장에서 분분하다. 농특위가 같이 논의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이해 및 준비가 부족하다. 이러한 주제의 토론회는 우리가 주최하는 것보다는 농식품부가 주최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김영재 분과위원장)
- 토론회 추진은 좀더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고 8.20에는 소분과 회의로 대체하는 것으로 소분과에 공지토록 하겠음(정학철 위원)
- 사실 가격안정보다는 수급안정 또는 경영안정 방안을 농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유통구조개선은 가격안정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음. 초점을 좁혀야할 필요성이 있고, 추후 농특위 차원에서는 재해 대비 또는 수입 보장 등 경영안정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박준기 위원)
-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은 사실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임. 일부 반대가 있어 쉽지 않더라도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면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박일진 위원)
- 전남도의 고민은 높이 평가함. 그러나,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이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인지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수단인지 방향을 명확히 잡고 체계 설계가 필요함. 시장도매인 제도가 매우 중요한 유통의 논의 의제이기하나 이것만 유통개선문제로 논의를 해서는 안됨. 경매제도 개선 사항, 도매법인 폐단, 중도매인과 견줄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등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유통개선 논의를 해야함(김영재 분과위원장)
- 농특위는 의제 과련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은 의안화와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방식이 있음. 소분과의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에 대한

입장을 정한다는 것에는 재고가 필요함(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 전남이 공익시장도매인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봄. 제안한 사항에 대해 전남도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화 시켜야함. 공익시장도매 추진은 전남도의 일이지 농특위의 일이 아님(김영재 분과위원장)
- 수입농산물 관리방안 논의는 전반적인 논의가 어렵다면 폭을 좁혀서 한 측면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다음 회의에 논의해보겠음(정학철 위원)
- 지금 통상문제는 급변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 방향성 정도는 우리가 제안을 해야함. 그런 차원에서 논의는 필요하고 우선 송기호 위원께 부탁을하고 어려우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논의 진행은 필요함(김영재 분과위원장)

### <농지제도소분과>

- 농지실태 조사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필요성은 위원장님께 다시 건의를 드렸음. 업무를 추진하는데 편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김영재 분과위원장)
- 농지 제도개선 의제는 실태조사를 추진을 하면서 올해 말이면 약간의 소중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제안해 주기 바람. 다음 회의 전까지 소분과에서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음(조병욱 위원)
- 축산인의 정의가 포함된 농업인의 정의 관련한 논의가 추진된다면 축산소분과 차원에서 도움이 될것임(박일진 위원)

### <공익직불제소분과>

- 주된 논의 방향은 선택형 직불제 도입 검토이고 축산, 수산 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검토 대상으로 이는 축산소분과 및 가격안정소분과와 협업해서 추진해야할 사안임(김영재 분과위원장)

### <축산소분과>

- 축산 공익형직불제 도입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서 한우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고민 중임(박일진 위원)
- 축산은 논의에 대한 합의 주체가 환경분야도 포함됨. 지속가능 축산을 위해 분뇨발생을 줄이기 위해 기업 축산을 규제해 적정 사육두수 관

리를 위한 사육권 쿼터제 의제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최근 논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박일진 위원)

- 축산분야 개혁을 위해서는 경종,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사회적 압력 및 도움이 필요함(박일진 위원)
- 축산업이 가야할 방향성 등을 놓고 이해관계를 좁혀 나가는 것을 농특위를 활용해서 진행주기 바람(김영재 분과위원장)
- 축산소분과 회의시 경종쪽 위원께서 오셔서 다양한 시각으로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박일진 위원)
- 앞으로 축산소분과 논의에는 환경 분야 위원 및 전문가가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조정 바람(김영재 분과위원장)